

## ① 재활용은 분리배출로부터 시작됩니다.

-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품목별(종이류, 캔, 페트병, 유리병, 플라스틱 등)로 배출된 재활용품은 재생섬유 등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

※ (단독주택) 지자체에서 수거, 각 가정은 무상으로 배출

(공동주택) 아파트와 계약한 민간업체에서 수거, 가정당 300~5000원 수익 발생

## ②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은 수거 후 선별됩니다.

- (수거) 수거업체에서 폐지 등 유가품은 수거 후 유상으로 판매하고, 유가성이 낮은 폐비닐 등은 무상으로 수거하여 운반·처리비용 부담

※ 그간 폐지 등 판매수익으로 폐비닐 등의 처리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최근 폐지 가격 급락('17년 120~150원/kg→'18년 30~50원/kg) 등으로 적자구조 심화

- (선별) 선별업체에서 품목·재질별로 선별·압축 후 재활용업체에 유상으로 판매, 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재활용품(잔재물)은 폐기 처분

※ 선별품 판매단가는 최근 3년간 약 40% 하락한 반면,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(약 30~40%) 처리비용은 상승되어 선별업체 수익구조 악화

## ③ 선별된 재활용품은 세척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사용됩니다.

- 재활용업체에서 선별된 폐비닐로 고휘연료제품(SRF)을, 폐페트로 페트 플레이크(섬유소재로 활용)를 제작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판매

※ 유가 하락에 따라 재활용품(SRF, 페트플레이크)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, 재활용업체의 판매수익이 감소하여 비용 충당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

< 재활용 업계의 자원분담 구조 >



⇒ 단독주택(무상배출)과 달리 재활용품 판매로 수익을 얻고 있는 아파트에서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약단가 조정 등 상생노력 필요